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 김영훈 장관, 청주 (주)노바렉스 방문, 청년·기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일(목)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주)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주)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2년부터 총 23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인 2025년에만 청년 10.7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41.1만명을 지원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확대 개편의 성과로, 26년 6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 2.5만개에 청년 5.5만명이 취업(중견기업 325개, 청년 2,222명)하여 전년 동기(기업 2.1만개, 청년 4.5만명)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청년들은 지역 취업과 정착을 결정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도약장려금 수혜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라면서도, “다만 채용 이후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청년들 역시 “수도권 및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경감이나 문화·인프라 지원 등 지역 취업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확충된다면 지역 정착을 결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 일선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조우균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044-202-7466)
			사무관	이기범 (044-202-7441)
			주무관	오세린 (044-202-7448)
			주무관	양수진 (044-202-7453)

- ❖ 청년과 기업이 취업·채용 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 ❖ 청년, 기업과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대담
→ 특히,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정책 중심 논의

□ 배경

-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해결 필요
 -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일시: 7.2.(목) 오전 10시
- 장소: (주)노바렉스 오송공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청년(4명)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5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	10'	▸ 사업장 안내	(주)노바렉스
10:10~10:1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체
10:15~10:20	5'	▸ 참석자 소개	청년고용정책관
10:20~10:25	5'	▸ 인사 말씀	장관
10:25~10:55	30'	▸ 청년·기업과의 간담회	참석자 전체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장관

-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①참여 신청, ②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8,026억원	9,251억원(+1,225억원)
지원인원	10.7만명	11.5만명(+0.8만명)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기업에 청년 채용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480만원)	<u>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u> 에게 근속 인센티브 (<u>2년간 최대 720만원</u>)
지원대상 (수혜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빈일자리 업종 기업 취업 청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u>비수도권 중견기업</u> ② <u>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u>